

충북대·원광대·울산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판정결과 유예기간 1년... 올해엔 영향 없어 미흡사항 보완해 1년 내 재평가 재평가서 탈락 시 신입생 모집 제한

올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 중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 의대가 한국교육개발원(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13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평원은 금명간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를 의대 30곳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의대는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 의대 등 3곳으로, 유예 기간이 1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기존 인증 상태는 유지되지만, 그 이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유예 기간동안 인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현재 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충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

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 의대는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기존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늘었다. 원광대 의대는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울산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 의평원은 이번 판정 결과에 오는 27

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결과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대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 판정은 4월 중순까지 이뤄진다.

이들 대학은 1년 이내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경우, 해당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의사 국가 시험을 볼 수 없어 사실상 신입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이 의대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자구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2024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 특별 대담하는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임희운 음악평론가.

고양시 지드래곤 월드투어 '위버맨쉬' 공연 유치

고양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의 2025년 글로벌 월드투어 '위버맨쉬(Ubermensch)'가 오는 3월 29일(토)과 30일(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 중 하나이며, 쿠팡플레이의 첫 협력 사례로서 향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지드래곤 2025 월드투어 위버맨쉬 인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쿠팡플레이는 한국 공연의 프렌들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드래곤만의 독창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더욱 차별화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대형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공연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양종합운동장은 그동안 카니에 웨스트,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공연장으로, 이제는 K-POP 아티스트들의 월드투어 시작점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공연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쿠팡플레이는 차별화된 라이브 공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양시와 협력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드래곤 월드투어뿐만 아니라,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등 대형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6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재로 '고양시 대형공연 유치사업 행정지원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40여 개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지난해 서울시 교통량 줄었다... 휴일에도 감소세

평일 기준 995만3000대 집계 올림픽대로, 교통량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시 내 교통량이 평일 기준 995만3000대로 집계됐다. 1000만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5만4000대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509개 도로, 139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휴일에도 교통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통행 차량 대수는 전년보다 1만대 감소한 875만5000대를 기록했다.

교통량은 2023년도 1000만대 수준에서 약 1년만에 900만대 수준으로 진입했으며, 전년대비 교통 상황이 원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평균 통행 속도는 평일 22.0km/h, 휴일 24.1km/h로 전년대비

속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량은

〈도시고속도로 통행 현황〉 (단위: 만대/일)				
순위	도로명	2024년	2023년	증감
1	올림픽대로	24.2	24.5	-0.3
2	강변북로	22.3	22.7	-0.4
3	경부고속도로	18.9	19.1	-0.2
4	내부순환로	14.0	13.9	+0.1
5	동부간선도로	13.5	13.4	+0.1
6	분당수서로	13.3	13.3	0.0
7	북부간선도로	10.9	10.8	+0.1
8	강남순환로	9.1	9.3	-0.2
9	신일여의지하도로	5.9	5.6	+0.3
10	서부간선지하도로	5.2	5.1	+0.1

/서울시

했다. 전체 평균 속도는 22.7km/h다. 서울 도심 및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인 10개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작년 대비 교통량 및 속도 방면에서 소

폭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량은 작년 대비 4000대 감소한 137만8000대, 통행 속도는 작년 대비 0.3km/h 증가한 50.2km/h를 기록했다.

각 도로별 세부적인 교통량 및 속도 추이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는 평일 평균 24만2000대가 이용하는 '올림픽대로'가 꼽혔다. 반면 교통량이 가장 적은 곳은 평일 평균 5만2000대가 이용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로 분석됐다. 주요 지점인 '올림픽대로'는 1년 전보다 3000대, '강변북로' 4000대 감소했다.

반면 도시고속도로 중 가장 느린 도로로는 일 평균 통행속도가 39.6km/h인 북부간선도로, 가장 빠른 도로는 일 평균 통행속도가 81.6km/h인 강남순환도로로 분석됐다. 시내부 도로 중 가장 느린 도로는 일 평균 통행속도가 16.5km/h인 우정국로로 분석됐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스마트청사'로 탈바꿈

오는 17일부터 정상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 신월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이 청사 리모델링 준공으로 청사를 재이전, 오는 17일부터 스마트청사에서 정상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35년된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과 교육지원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지난 1월 준공해 청사 재이전을 하게 됐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사운영 중단없이 14일까지는 옛 공진중학교 부지인 강서구 양천로 임시청사에서, 17일부터는 양천구 월정로 269 스마트청사에서 정상 운영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스마트청사는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청사 리모델링 준공으로 청사를 재이전, 오는 17일부터 스마트청사에서 정상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을 구조 변경, '첨단 정보형 사무실' 환경으로 탈바꿈해 교육지원청사로 거듭난다.

청사 1~3층은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자율좌석제' 사무공간과 7개의 미팅룸으로 구성하고, 4층 전체는 '개방형 공간'으로 대강당, 라운지, 중·대회의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농촌유학 학생, 누적 2200명 돌파

서울시교육청, 1학기 381명 참여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신규 모집한 결과, 총 381명의 학생이 신청하며 누적 2200명을 돌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1학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의 농촌유학에 서울 학생은 총 381명이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신규 참여 학생은 150명이고, 연장하는 학생은 231명이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1학기 이상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친화교육을 받고 각종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누적 참여 학생 수는 2232명에 이르며,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을 위한 대표 교육 모델

로 자리 잡고 있다. 연도별 누적 학생 수는 2021년 228명에서 2022년 714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 뒤, 2023년 1197명, 2024년 1851명, 2025년 1학기 2232명으로 2000명대를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또는 1년동안 참여한다.

지역별로는 ▲강원(신규 87명, 연장 79명) ▲전남(신규 42명, 연장 101명) ▲전북(신규 21명, 연장 51명)으로, 신규 신청은 강원 지역이, 연장 신청은 전남 지역이 가장 많다.

오는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월 중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및 전학 신청을 한 후 3월부터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총동문회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홍광희·서경교 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양인집)는 13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는 대한민국 수입 시스템 개선과 국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려 홍광희(스페인어통번역 83) 뉴코리아진흥 대표를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 모교에서 28년 6개월 동안 후학 양성과 학교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서경교(정치외교 78)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자랑스러운 외대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현진 기자